13일 Market Index
코스피 5290.53 (-52.20)
코스닥 699.66 (+3.13)
금리(국고채 3년) 3.759 (+0.030)
환율(원·달러) 1336.7 (+6.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엔비디아, 670조 AI구상 자금줄 막히나

젠슨 황 퇴진 후 첫 실적
韓시간 18일 오전 콘퍼런스콜
황 vs 크레스, 금융지원 이견
고객사 금융전략 변화 주목



美 대규모 항공이륙 중단 여파 14일(현지시간) 美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전국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해제했지만 미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공 이륙 중단의 여파로 미국 공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퇴진 후 첫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투자 전략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금융지원 구상에서는 일부 기관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경영진의 투자 기조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엔비디아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18일 오전 6시 20분 실적이 공개되며 오전 7시 콘퍼런스콜이 진행된다. 황 전 CEO가 지난 12일 사임하고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로 선임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3분기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는 1093억달러(약 146조원)로 엔비디아가 지난 8월 제시한 1080억달러(약 144조원)를 웃돈다.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1018억달러(약 136조원)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은 황 전 CEO가 퇴진하기 전인 지난달 25일까지의 경영 성과다. 이에 따라 새 경영진이 제시할 4분기 매출 전망과 기존 AI 투자 전략의 유지 여부가 이번 발표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특히 황 전 CEO가 주도한 고객사 금융지원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황 전 CEO는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자금을 지원해 반도체 구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펴왔지만 크레스 임시 CEO는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 임시 CEO 금융지원 보수 성향

업계에 따르면 크레스 임시 CEO와 재무팀이 오픈AI 등 AI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이견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구상도 당초 2500억달러(약 334조원)에서 1200억달러(약 160조원)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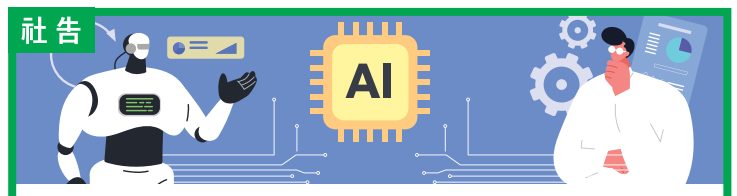
황 전 CEO가 추진한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의 AI 금융지원 구상도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등 6개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해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참여와 보증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금 조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 금융기관 가운데 최소 1곳이 철수를 논의했으며 일부 고객사와 금융기관은 엔비디아에 보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구상에 따른 대출도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투자 방향은 정식 CEO 선임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크레스 임시 CEO 외에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 개발을 이끈 이언 벅 부사장과 앤비디아 출신 르네 하스 Arm CEO 등이 후임 후보로 거론된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靑, AI 부정행위 차단 긴급회의

국가시험 의심사례 전수조사
18일 수능 전담팀 편성하기로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실토하면서,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씨의 부정행위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문직 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하 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m-커버스토리

외국인 지갑 열었다… 백화점 실적 '고공행진'

百 3사, 3분기 호실적
신세계, 매출 6892억 11%↑
롯데, 5.7% 증가 8081억
현대, 6.5% 오른 6145억

백화점 3사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명품·패션 등 고마진 상품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4분기에는 원화 강세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3분기 매출은 68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37억원으로 23.5% 늘었다. 본점(44%), 강남점(17%), 센텀시티점(14%) 등 주요 점포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신세계의 연결 영업이익은 1643억원으로 64.7% 급증했다. 〈관련기사 3면〉

롯데백화점은 3분기 매출이 5.7% 증가한 808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35.7% 늘어난 1129억원을 거뒀다. 현대백화점 역시 매출 6145억원, 영업이익 1141억원으로 각각 6.5%, 27.8% 증가했다.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가 있다. 롯데백화점·쇼핑몰의 올해 외국인 누적 매출은 지난달 초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또한 같은 기간 각각 8500억 원과 8050억원을 기록하며 1조 달성을 코앞에 뒀다. 다만 업체별 외국인 매출 집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매출만 집계한 반면 롯데는 아울렛과 몰, 현대는 아울렛 매출을 포함한다.

다만 4분기 전망은 엇갈린다. 연말 쇼핑 성수기와 대규모 할인 행사가 매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쇼핑 수요 감소와 국내 증시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이 변수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도 부담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자백에 "교육당국,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조국 "與,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진영 내부서 역풍…조희대 탄핵해야" /사진 뉴시스
▲혐오·비방 '꼼수' 정당 현수막 다시 기승…정부, 연말까지 '철퇴'
▲직장인 64% "온라인서 혐오 표현 접해"…그중 48% "여성·특정지역 대상"
▲"건강기능식품 먹는 집 늘어도"…가구당 지출은 줄어
▲청년 임금근로자 46%가 비정규직 '역대 최고'…정규직 23년 새 107만개 사라져